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루카 9,16)



〈빵과 물고기의 기적〉, 김옥순 수녀 작

[부속가]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취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뉘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푼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ปัง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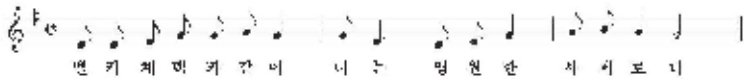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루카 9,11ㄴ-17

[제1독서] 창세 14,18-20

[화답송] 시편 110(109),1,2,3,4
(◎ 4ㄴㄷ)

◎ 뿔키체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뿔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뿔키체택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2독서] 1코린 11,23-2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1,2절)
 • 봉헌성가: [340] 봉헌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3,4절)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¹¹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¹²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잡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¹³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⁴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십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¹⁵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¹⁶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¹⁷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Jesus spoke to the crowds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he healed those who needed to be cured.
As the day was drawing to a close, the Twelve approached him and said,
“Dismiss the crowd so that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farms
and find lodging and provisions; for we are in a deserted place here.”
He said to them, “Give them some food yourselves.”
They replied, “Five loaves and two fish are all we have,
unless we ourselves go and buy food for all these people.”
Now the men there numbered about five thousan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fifty.”
They did so and made them all sit down.
Then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said the blessing over them, broke them,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crowd.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when the leftover fragments were picked up,
they filled twelve wicker baskets.

† 묵상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체성사를 특별히 기념하고 그 신비를 묵상하는 날로 지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례 안에서 기념해 왔던 육화의 신비 전체와 삼위일체의 신비까지도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의 의미 안에 함축되어 있고, 오늘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이야말로 하느님 사랑과 구원 의지의 가장 탁월한 표현이요 그 구체적인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제시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당신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내어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재자이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신 겸손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하신 수난과 고통, 부활을 통하여 이룩하신 승리까지도 모조리 우리에게 내어 놓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당신 안에 갖고 계신 삼위일체의 신비까지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체와 성혈을 모심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며, 온전한 일치 속에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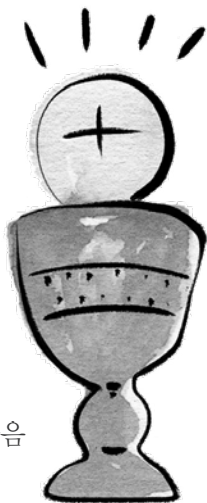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온전히 채워지는 신비를 경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능력 가운데 하나임을 되새기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한다. 전통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목적 배려로 주일로 옮겼다. 그리스도의 성체 축일과 성혈 축일이 따로 있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함께 기념해 오고 있다.



(비오로얄 콘텐츠)

눈 앞의 기적

빵 하나를
천 조각으로 나누었거든

빵 하나를
천 개로 만들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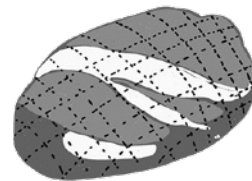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배불리 먹었고
우리 모두 행복했습니다.

눈앞의 기적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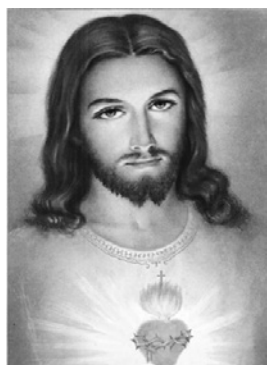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루카 9,17)



임의준 신부/가톨릭신문

6월 28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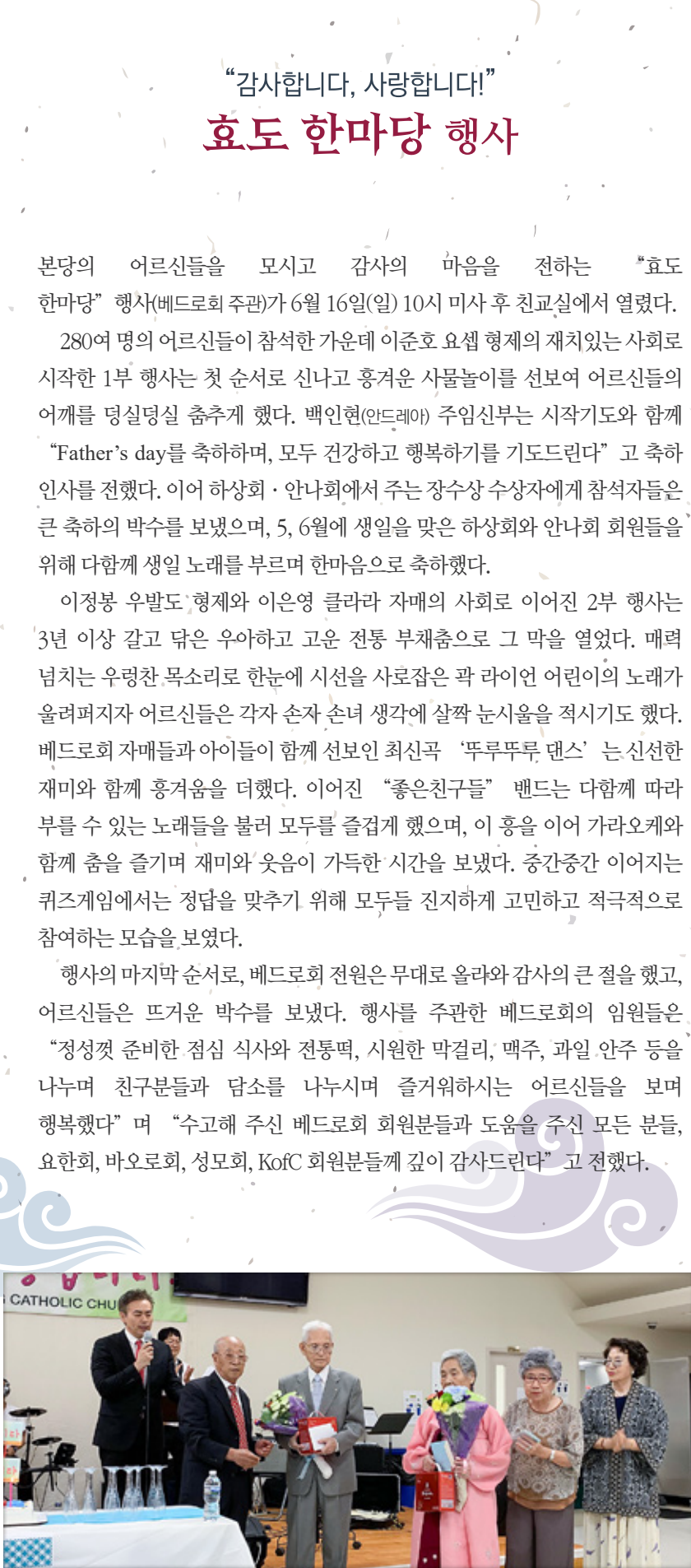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부터 시작하여 점차 퍼지면서 보편화되었다.

1856년 비오 9세 교황 때 교회의 전례력에 도입되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지극히 사랑하옵 예수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사제들을 굽어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사제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언하며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지켜 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희생을 본받고 실천하며 주님의 가난을 받아들여 자유로워지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를 낮추게 하소서.
- 사제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느님 백성의 길잡이가 되고 일치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 사제들이 모범이 되어 성실한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 ◎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효도 한마당 행사

본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도 한마당” 행사(베드로회 주관)가 6월 1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28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준호 요셉 형제의 재치있는 사회로 시작한 1부 행사는 첫 순서로 신나고 흥겨운 사물놀이를 선보여 어르신들의 어깨를 덩실덩실 춤추게 했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시작기도와 함께 “Father’s day를 축하하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드린다” 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하상희·안나회에서 주는 장수상 수상자에게 참석자들은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냈으며, 5, 6월에 생일을 맞은 하상희와 안나회 회원들을 위해 다함께 생일 노래를 부르며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이정봉 우발도 형제와 이은영 클라라 자매의 사회로 이어진 2부 행사는 3년 이상 갈고 닦은 우아하고 고운 전통 부채춤으로 그 막을 열었다. 매력 넘치는 우렁찬 목소리로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은 광 라이언 어린이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은 각자 손자 손녀 생각에 살짝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베드로회 자매들과 아이들이 함께 선보인 최신곡 ‘뚜루뚜루 댄스’ 는 신선한 재미와 함께 흥겨움을 더했다. 이어진 “좋은친구들” 밴드는 다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불러 모두를 즐겁게 했으며, 이 흥을 이어 가락오케와 함께 춤을 즐기며 재미와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중간중간 이어지는 퀴즈게임에서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 모두들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베드로회 전원은 무대로 올라와 감사의 큰 절을 했고, 어르신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행사를 주관한 베드로회의 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와 전통떡, 시원한 막걸리, 맥주, 과일 안주 등을 나누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행복했다” 며 “수고해 주신 베드로회 회원분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요한회, 바오로회, 성모회, KofC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Congratulations

2019 First Holy Communion

June 16, 2019



“영성체의 기적이 소중하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찬미 예수님,

먼저 첫영성체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첫영성체는 어린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맺은 기쁜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다림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기다림보다 예수님의 기다림이 더 크고, 예수님의 기쁨이 더 크실 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긴 기다림과 정성이 모여 이루어낸 영성체의 기적이 어린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소중하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첫영성체 어린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축하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 정 바오로 성당 공동체 전체입니다. 한 공동체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공동체의 한 세대를 이어가고 성체성사를 통하여 신비로운 결합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 전 공동체는 어린이들의 첫영성체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본당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성 정 바오로 공동체 모두 첫영성체 어린이들을 선물로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첫영성체의 신비와 은총이 더욱 커지도록, 공동체 전체의 신앙으로 보살피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영성체 어린이들과 그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더욱 경건하게 순수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영성체로 새롭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아이들이 믿기 시작한 것을 더욱 굳게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서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이 자라도록은 공동체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어린이들의 첫영성체를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이 열매를 위하여 아이들의 거름이 되어주신 첫영성체반 교리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



(사진 : 문화부/첫영성체 학부모 봉사자 제공)



The First Holy Communicants

Nicole Kim(Claudia)
Angela Hong(Anastasia)
Harper Choi(Flora)
Juha Choi(Bona)
Catherine Lee(Clara)
Aria Huaman(Beatrice)
Marie Lee(Mary)
Anabelle Hwang(Anne)
Hannah Bang(Agnes)

Chloe Lee(Veronica)
Katie Han(Esther)
Nari Park(Rosaria)
Ryan Kwak(Stephen)
Wooil Choi(Benedict)
Nathan Park(Nathaniel)
Isaac Pak(Isaac)
Simon Kim(Simon)
Robert Lee(Robert)

Lian Flinger(Gabriel)
Dante Huaman(Francesco)
Ethan Chi(Stephen)
Jake Park(Joseph)
Michael Koo(Michael)
Drake Kwon(Michael)
Allen Yoon(Andrew)
Ho Jun Seo(Joseph)
Wonjoon Park(Thomas Aquinas)

Congratulations to All St. Paul Chung's First Communicants 2019!

Yes, through Fr. Kang, an Icon of Jesus' Sacred Consecration, the Bread and the Wine became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Indeed, the Transubstantiation has occurred and You are now united with Christ's Paschal Mystery(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와 일치되었습니다), to be Holy like Jesus, to be Beautiful like Jesus, to be Kind like Jesus, to be a Great Ambassador for the Lord Jesus Christ and to Serve the Holy Church, His Holy Bride, as One Mystical Body(예수님 한 몸을 이룬 신비체로써...).

Yes, you have been invited by Jesus' Holy Feast, the Holy and Heavenly Banquet, to Celebrate and Remember the *Corpus Christi*(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Now and Forever.....

- Thank you *Iesu Amator Noster*...Jesus, lover of us...
우리를 사랑 하시는 예수님...
- Thank you Fr. Kang, An Icon of the Lord Jesus Christ.....
- Thank you First Holy Communion Communicants 2019.....
- Thank you Parents.....
- God Bless You All and Keep You Happy
in Christ's Holy Eucharist, I Pray.....

- **Rosaria Shin** (Catechist)

첫 영성체를 축하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27명의 아이들이 매 주 수요일 저녁에 열심히 교리공부를 하며 첫 영성체를 준비하였습니다. 피곤한 저녁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하느님 공부를 꾸준히 함께 해준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축복을 표합니다.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어른과 같이 계산하지 않고, 하느님을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성체를 꼭 모시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아이들의 맑음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제 신앙을 되돌아 보고 그 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행했던 반년의 시간 동안 저를 비롯하여, 우리 첫 영성체반 아이들 모두가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아빠, 하느님께 이 날의 영광을 드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받아 모시게 된 이 순간의 감격과 뜨거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삶 안에서 늘 예수님과 가장 좋은 친구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신부님 두분과, CCD 교무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늘 뒤에서 지원해 주신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 **Michaella Youngsin Nam** (3rd Grade Catechist)

· 축하합니다.

루르드의 성모 브레시디움 1000차 주회



루르드의 성모 브레시디움이 지난 6월 16일(일) 주회 1000차를 맞아 조촐한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축하 자리에는 백인현 주임신부님과 강두영 보좌신부님, 수녀님들을 비롯하여 꾸리아 간부들과 전직 단원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결코 짧지 않은 20 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타주로 이사를 간 단원도 있고, 하느님 품으로 보낸 단원도 있고, 크고 작은 일로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희로애락을 성모님 보살핌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루르드의 성모 Pr.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대로서 희생과 봉사를 다하며 레지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루르드의 성모 Pr.은 현재 행동 단원 5명과 협조 단원 9명으로 너싱홈을 방문해 말벗과 기도로 위로해 드리고, 입교 권면, 상가 방문, 연도, 성당 청소, 행사 협조, 성모회 봉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단장: 권주연(젬마), 부단장: 정순자(루시아), 서기: 임마리(마리아나), 회계:박노미(로사), 하춘자(데레사)

● 하늘의 문 꼬미시움 3개 꾸리아 연합 주회



레지오 마리아 하늘의 문 꼬미시움 '2019년 NC 3개 연합꾸리아'가 지난 16일(일) 그린스보로 성 유대철 성당에서 열렸다.이호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은 환영 훈화 말씀에서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좋은 활동은 선교이며, 생활 속의 가장 좋은 선교 활동은 식사 전 후 성호를 긋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나 자신도 성화되며 타인에게 선교가 되는 완벽한 기도인 성호경을 긋는 숫자 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것"을 당부하셨다. 꼬미시움 산하 NC 3개 본당 소속 50여 명의 레지오 단원들은 회합과 친교 후, 내년에는 샬롯 성 이윤일 요한 성당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성모님과 함께 주님과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1 유아세례

• 일시: 6월 23일(일) 오후 3시, 성당

2 K of C 월례회의

• 일시: 6월 23일(일) 오전 11:30(A-2)

3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6월 23일(일) 오전 11:30(B-2)

4 2019 - 2020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비: \$80
• 장소: 하상관 교무실 (일요일 오전 10시 - 오전 11:30), 6월 23일 마감

5 울뜨레야 회합

• 일시: 6월 28일(금) 평일 미사 후(A-1,2,3)

6 루카회 월례회의(60대 형제, 자매)

• 일시: 6월 30일(일) 오전 11:30(나눔터)
• 문의: 강세원 바오로 (703)489-3938

7 유언 상속에 관한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6월 30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 강사: 이 그레고리오 변호사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8 주차장 이용 안내

• 주일학교 방학기간(6월 23일 - 9월 1일)에는 교사 주차 공간을 모든 교우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리사이클(Recycle) 표어 공모 시상

• 6월 30일(일) 10시 미사 중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 1등: 정성지 크리스티나
"무심코 버리면 오염 신경쓰고 버리면 자원"
• 2등: 센터빌 3번 "환경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주님사랑"
• 3등: 비엔나 1번 "하나뿐인 지구사랑 한 분이신 주님사랑"
• 문의: 서경원 구역부 부회장 (571)236-7071

10 동중부 푸르실로 지도신부배 골프대회

• 일시: 7월 14일(일) 오후 1시
• 장소: Pleasant Valley Golf Club
• Green Fee: \$100(점심 포함)
• 문의: 서경원 (571)236-7071

11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뉴저지 일일 성지 순례

• 자연속에서 티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하는 은총의 자리에서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7월 13일(토) 오전 5시 출발 / 오후 10시 도착
• 장소: 뉴저지 파티마 성지 (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 참가비: 80불(아침, 점심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비 포함)
• 신청: 친교실(선착순 52명) (참가비는 현금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 루카 (703)254-7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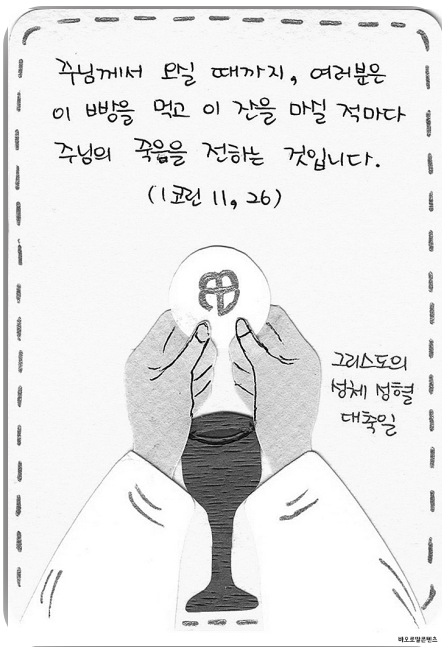
CYO WorkCamp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 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CYO Work Camp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들이 6월 22일(토)부터 6월 28일(금)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봉사에 참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봉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

복음화 지향: 사제들의 삶의 방식

사제들이 겸소하고 겸손한 삶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합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23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요한회 모임(오전 11:30, B-2), KofC 모임(오전 11:30, B-1,2), 바오로회 모임(오후 1시), 파티마회원 나눔터 사용(오전 11:30-오후 3시), 유아세례 (오후 3시, 성당)
24일(월)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25일(화)	연중 제12주간	하상 한국학교,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에(오후 8시), 바오로 기획부모임(오후 8시)
26일(수)	연중 제12주간	하상 한국학교,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27일(목)	연중 제12주간	하상 한국학교, 평일미사(오전 6시)
28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하상 한국학교, 평일미사(오후 7:30), CYO Work Camp 참가자들 도착, 울뜨레야 회합 (오후 8시, A-1,2,3),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29일(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 (오전 9:30), 푸르실로 차수모임(오전 11시, 체육관, 나눔터)
6월 30일(일)	연중 제13주일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8시), 루카회 (오전 11:30, 나눔터),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2주간: 시편 64-72, 1 코린 15

KACM TV 하이라이트

6월 27일(목) 오후 5:00-6:00
6월 28일(금) 저녁 8:00-9:00
6월 30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9: 산토 도밍고 성인의 탄생을 지나며 계속되는 여정



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6월 16일(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주일헌금	\$8,054.00
교우금	\$7,585.00
교우금(크레딧카드)	\$4,790.00
특별헌금	\$1,155.00
2차헌금	\$0.00
합계	\$21,58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분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영화, 윤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수자(루시아), 박윤재(토마스), 김동문(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넬), 장미래(이베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참(프란치스코), 주기환(말림),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타 정(세레나), 신재홍(대간안드레아), 정수자(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효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적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경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Commercial 김준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